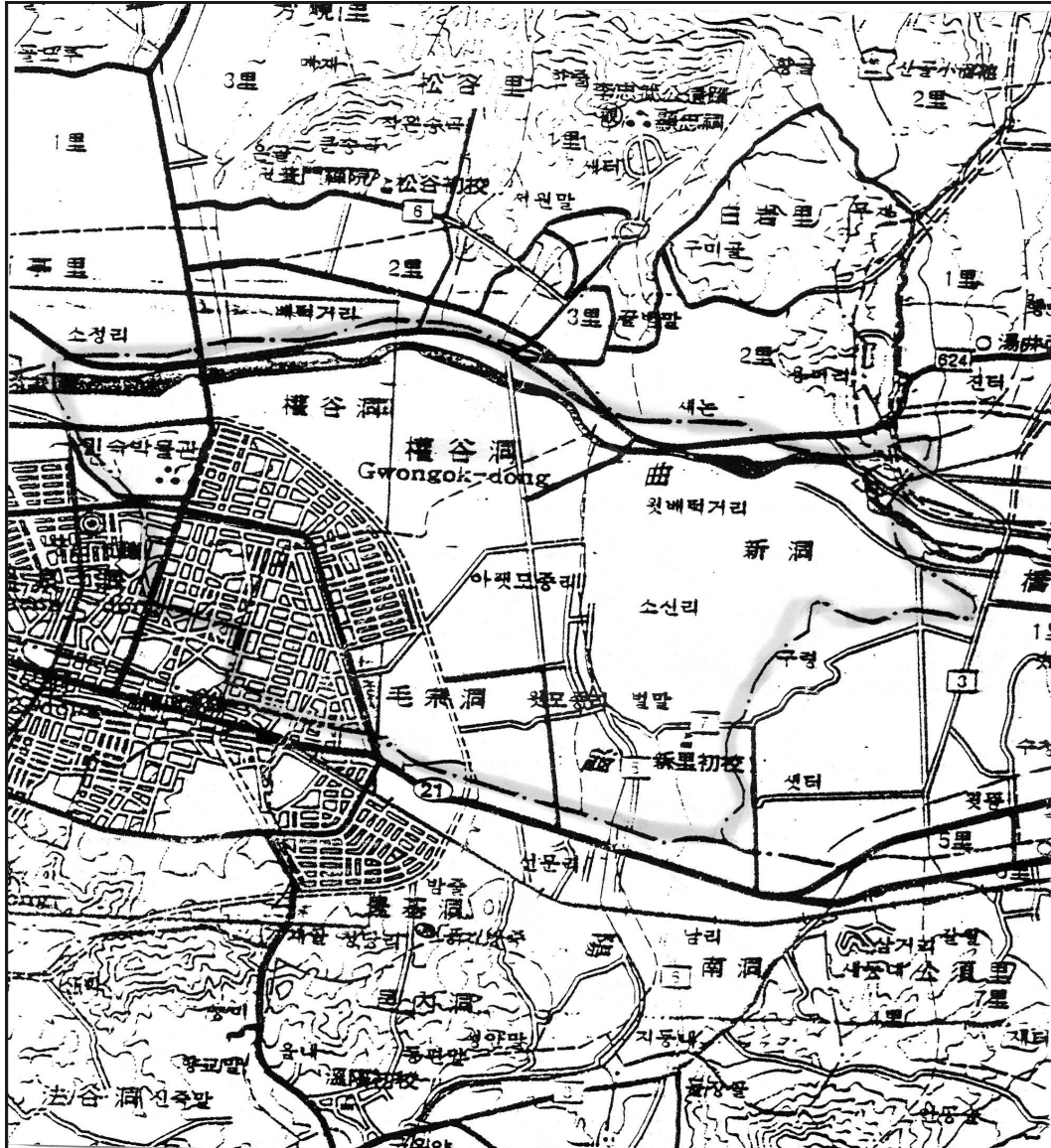


권곡동 (權谷洞)



권곡동의 행정구역은 3개의 법정동에 17통 128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곡동 사무소 전경>



☒ 권곡동 개황

－ 근처연혁

권곡동은 본래 백제시대에는 온주군 통일신라시대에는 탕정주로 고려시대때는 온주현 조선시대에는 온양군 이북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구렁이와 같고 또 마른 구렁이로 되었으므로 건구렁·권구렁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권곡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종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권곡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하여 온양읍에 편입. 1986년 시로 승격되면서 권곡동(3통), 모종동(4통), 신동(2통)이었고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시 설치로 아산시에 편입되었다.

권곡동은 시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 아파트의 건립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 반 수

권곡동은 시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 아파트의 건립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3개 법정동 <권곡동(6통), 모종동(9통), 신동(2통)>에 17통 128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시 통합이후 2001년 12월 31일 현재)

－ 가구 수

세대수는 5,155세대이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

- 인 구

인구는 15,624명인 바, 남자 7,660명이고 여자는 7,964명이다.

- 면 적

면적은 7.67km²로 아산시의 1.43%를 차지한다.

- 경지면적

경지면적은 논이 401.7ha 밭이 81.0ha로 총 482.7ha이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

- 농가구 현황

권곡동의 농가구 수는 697가구로 총 가구의 14%이다.

- 산업별 현황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이 391곳으로 724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389곳으로 877명이 종사하고 있다.

- 학교별 현황

교육기관은 4개소(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있다.

- 의료시설

없음.

-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농협과 축협 그리고 우체국이 있다.

- 문화재 현황

권곡동에는 문화재는 없지만 조상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이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교육 학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공장현황

회 사 명	공 장 소 재 지	생 산 품 명
서울화학 공업 주식회사	권곡 모종 2통	
제일자동차 정비공장	권곡 모종 2통	자동차 정비
신기자동차 정비소	권곡 모종 7통	자동차 정비

－ 종교분포

분 류	단 체 명	소 재 지
기 독 교	갈보리교회	권곡 529-3
	광장감리교회	모종 576-1
	나눔의 교회	권곡 364-5
	동천교회	권곡 549-29
	새소망 교회	권곡 527-1
	새일교회	권곡 546-47
	샘물교회	모종 576-6
	성실교회	모종 583-17
	신리교회	신동 308-1
	아산광혜교회	모종 568-16
	영광교회	모종 263
	예목교회	모종 575-11
	예본교회	모종 신양주택 591-1
	온양가정교회	모종 595-14
	온양동산교회	모종 571-13
	온양성민교회	모종 588-7
	온양시온교회	권곡 545-4
	온양제일감리교회	권곡 219-9
	온양중부교회	모종 580-8
	온양한신교회	권곡 539-5
	온천교회	권곡 538-2
	주찬양교회	권곡 551-36
	평강교회	모종 551-14,15
	푸른초장교회	모종 553-11
	한신교회	권곡동 539-5
	흰돌교회	권곡 524-13
불 교	포교당	모종동 595-22
	황룡사	권곡동 550-12
원 불 교	원불교 온양교당	권곡 539-6

천 주 교	천주교 온양온천교회	권곡 553-9
-------	------------	----------

－ 특기사항

아산의 관광명소의 하나인 온양민속박물관이 권곡2통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온양민속 박물관에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온양민속박물관

· 취 지

민속은 한 겨레의 가장 구체적인 생활 양상이며, 그 겨레의 얼과 사상을 담은 기층 문화이다. 그러므로 민속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곧 잘 변질되거나 소멸되어 버릴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틀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전승된다. 즉 민속 문화는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적응·변화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성격을 띤 문화이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자산의 민족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문명에 동화되어 버린 민족들은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고유의 문화를 잘 지켜 내려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서 자율성을 잃지 않고 능동적인 발전을 이룩해 올 수 있었다.

우리 문화가 중세 이래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늘 속에서도 이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이며 고유한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한 마디로 제 바탕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발전에 따른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외국문물의 무절제한 유입 등은 우리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문화전통을 뿌리채 뒤흔들 요인으로 실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 겨레문화를 보전하고 나아가서 겨레 자체를 지키려면 전통문화의 주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폐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민속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며, 후세들에게 합리적으로 교육시키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며, 한국문화의 독자성을 선양할 민속박물관의 출형이 요청된다. 온양 민속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은 이러한 뜻을 실천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온양 민속 박물관>



● 전시내용

박물관의 전시는 장소에 따라 실내전시와 야외전시로, 성격에 따라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로 나눌 수 있다.

온양민속박물관의 실내전시는 4개의 대전시실과 1개의 소전시실로 나뉘어 13개 분야의 상설전시가 3

개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으며, 1개의 대전시실과 1개의 소전시실이 특별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 제1전시실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살펴본□한국인의 일생□과□의식주 생활□을 전시하였다.

① 한국인의 일생

아들 낳기를 비는 기자 습속에서부터 탄생, 성장, 교육, 결혼, 여러 가지 직업, 회갑, 상례, 제례 등 일생동안 겪게 마련인 과정을 우리나라 사람의 생사관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도록 입체화하여 전시하였다.

② 식 생활

밥, 김치, 떡, 과자, 화채, 향토음식 등의 음식과 상차림 그리고 식사도구, 주방 기구, 부엌세간, 술빚기 등을 실물과 모형을 사용하여 전시하였다.

③ 주 생활

안방, 마루, 사랑방의 세간 갖춤을 재현하였으며, 사진 자료로써 민간 유형을 보여주고 조명, 난방기구와 부채, 표주박, 연초구 등의 물품도 전시하였다.

④ 의 생활

머리꾸밈, 남자 평상복과 관복, 신발, 어린이옷, 여자옷, 작업복, 바느질, 다듬질에 관한 체구를 전시하였으며, 화장도구와 장신구도 갖추었다.

나. 제 2전시실

이 전시실에는 농업, 어업, 수렵, 채집 등의 생산도구와 길쌈, 자리짜기, 가마니 짜기 등의 농가 수공용품 그리고 대장간이 전시되었다.

① 농 업

농사를 짓는 과정에 따라 갈고, 씨 뿌리고, 김매고, 거름주고, 물대고, 추수하여 나르고, 알곡내고, 갈무리하는 연장과 가축 기르는 도구를 벌여 놓았다.

② 길 쌈

목화와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실을 뽑은데서부터 베틀에 엮어 옷감을 짜기까지의 과정을 입체 전시로 보여주고 있다.

③ 채집과 사냥

각종 약초채집 및 사냥도구, 멧돼지 사냥꾼, 매 사냥꾼의 모습을 보여준다.

④ 고기잡이

고기잡이배와 그물, 낚시와 각종 통발, 어부와 해녀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민물에서 고기 잡는 연장도 수집하여 전시되고 있다.

⑤ 대 장 간

우리 옛 살림에 없어서는 안 될 각종 철제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을 재현 하였다.

다. 제 3전시실

우리 선조들이 미적 감각과 솜씨를 느낄 수 있는 각종 민속공예, 겨레의 자연관, 가치관이 잘 함축되어 있는 민간신앙과 오락·예능 그리고 집단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학술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여 놓았다.

① 민속공예

금속, 화각, 나전, 종이, 도자, 돌, 자수, 나무 등으로 된 각종 공예품의 제작도구와 과정, 이에 의해 완성된 아름다운 공예품을 전시하였다.

② 민간신앙

우리 겨레의 형성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생각되는 뿌리 깊은 신앙인 마을신앙, 가정신앙, 무속신앙, 민속불교 그리고 점복과 주술에 의지하는 갖가지 민간신앙의 형태를 펼쳐 보여준다.

③ 놀이, 예술, 세시풍속

어린이들의 놀이나 어른들의 오락, 꼭두각시, 탈춤놀이, 농악, 민속음악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한해가 시작되어 끝나기까지의 각종 의례와 풍습을 사진 자료로 보여주고, 시절음식도 모형으로 전시하였다.

④ 학술과 제도

교육, 각종인쇄 과정, 천문과 지리, 의술, 교환이나 상거래에 필요한 도구 등을 여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라. 특별전시실

2백여 평의 대 전시실을 둘로 나누어 현재□양반의 생활□과□민화□특별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소 전시실에는 우리 겨레의 사상적 배경과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탕화중 시왕도와 변상도를 전시하고 있다. 이곳은 앞으로 영상전시실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마. 야외전시

전통 가옥, 각종 돌제품, 묘지와 상여, 종이 만드는 공방, 각종 방앗간을 재현하는 야외환경에 조화롭게 전시하고 있으며, 민속 놀이터로 조성하여 놓았다.

(1) 권곡동 《 권곡 1통 ~ 권곡 6통 》

<권곡동 전체 위치도>



<조사당시 권곡동 전경 사진>



－ 명칭유래

권곡동은 본래 온양군 이북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종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권곡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에 온양읍에 편입되었고, 1986년 시로 승격되면서 온양시 권곡동에서 1995년 도농통합으로 아산시 권곡동이 되었다.

－ 통별 인구분포

권곡동의 총 인구는 7,064명이다.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자	여 자
권곡 1 통	1,345명	665명	680명
권곡 2 통	842명	410명	432명
권곡 3 통	1,033명	515명	518명
권곡 4 통	1,219명	599명	620명
권곡 5 통	2,053명	1,024명	1,029명
권곡 6 통	572명	274명	298명

－ 통별 가구수

권곡동의 총 가구 수는 2,389가구이다. 농가가 289가구이고, 비농가가 2,100가구이다.

각 통별 현황을 아래의 표로 자세하게 알아보자.

구분 마을명	계	농 가	비 농 가
권곡 1 통	450 가구	52 가구	398 가구
권곡 2 통	308 가구	34 가구	274 가구
권곡 3 통	350 가구	53 가구	297 가구
권곡 4 통	432 가구	74 가구	358 가구
권곡 5 통	673 가구	55 가구	618 가구
권곡 6 통	193 가구	21 가구	172 가구

－ 통별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 가	비 농 가
권곡 1 통	100%	11%	89%
권곡 2 통	100%	11%	89%
권곡 3 통	100%	15%	85%
권곡 4 통	100%	17%	83%
권곡 5 통	100%	8%	92%
권곡 6 통	100%	10%	90%

－ 통별 농경지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권곡 1 통	135ha	92ha	43ha
권곡 2 통	-	-	-
권곡 3 통	-	-	-
권곡 4 통	-	-	-
권곡 5 통	-	-	-
권곡 6 통	-	-	-

－ 통별 농기계

구 분 마 을 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권곡 1 통	10대	6대	7대	1대	20대	1대	2대
권곡 2 통	-	-	-	-	-	-	-
권곡 3 통	-	-	-	-	-	-	-
권곡 4 통	-	-	-	-	-	-	-
권곡 5 통	-	-	-	-	-	-	-
권곡 6 통	-	-	-	-	-	-	-

－ 통별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기타
권곡 1 통	1개소	1조	1조	-	1조	-
권곡 2 통	-	-	-	-	-	-
권곡 3 통	-	-	-	-	-	-
권곡 4 통	-	-	-	-	-	-
권곡 5 통	1개소	1조	1조	-	-	-
권곡 6 통	-	-	-	-	-	-

－ 최고령자

권곡동의 최고령자는 1통에 사시는 윤소에 할머니로 1910년 10월 16일에 태어나셔서 현재 92세로 소일을 하시면서 정정하게 살고 계시다.

－ 통별 호당 소득

권곡 1 ~ 2통은 연평균 1,800만원의 소득을 보였으며 그 외 3~6통은 아파트 및 빌라촌, 상가 등으로 이루어져 가구당 평균소득 환산이 어렵다.

－ 통별 사진

<권곡 1통>



온양온천역에서 1km지점 북쪽에 위치
권곡리 1구, 권구랭이, 민속박물관 길 건너편에 있는 마을

<권곡 2통>



온양온천 시내와 경계를 이루고, 충무교 방향 도로변에 위치. 전신전화국과 민속박물관이 있음

<권곡 3통>



아산고등학교 앞의 지역한전, 전매서, 지적공사, 온양천주교회와 시온감리교회가 위치

<권곡 4통>



동천교회, 원예농협, 전 호산양조장, 성심한의원등이 위치

<권곡 5통>



온양온천 시내와 인접해 있고 북으로는 한울 중·고등학교와 올림픽아파트가 있음

<권곡 6통>



온양온천역에서 북동쪽이며 권곡동사무소와 양우아파트가 있다

－ 지명

·권곡 [마을] : 지형이 구렁이와 같고 또 마른 구렁으로 되었으므로 건구렁 권구렁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권곡이라 함.

·건-구렁 【마을】 → 권곡.

·고갱-이 【마을】 고갱잇들에 있는 마을. 새로 생겼음.

·고갱잇-들 【들】 권구렁이 앞에 있는 들.

·권-구렁이 【마을】 → 권곡.

·문화-주택(文化住宅) 【마을】 권구렁이 남쪽에 있는 마을. 6·25사변 이후에, 신식으로 문화주택을 지었음.

·변두리 [학교말] 【마을】 권곡 변두리에 있는 마을. 한울중학교가 있음.

·사-거리 【마을】 권구렁이 남서쪽에 있는 마을. 네갈래의 길이 있음.

·산-모랭이 【마을】 권곡리 북쪽 산 모퉁이에 있는 마을.

·학교-말(學校末) 【마을】 → 변두리.

－ 전 설

없음.

－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권곡동에는 동제가 지금도 행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제당과 그 유래

동제당은 마을에서 300m정도 떨어진 곳에, 염티읍과 맞닿은 시계를 따라 흐르고 있는 곡교천을 바라보고 지어져 있다. 1칸 규모인데 예전에는 초가이었으나 지금은 함석으로 지붕을 이었다. 이 당집 옆에는 괴이하게 생긴 팽나무가 있다. 당집의 내부에는 문과 마주보는 벽면에 당신도가 걸려 있다. 우리가 있는 액자가 모두 4점이 있는데 중앙에 호랑이를 타고 있는 백발노인의 산신령과 좌우로 총각과 처녀가 위치하며 그 오른편 벽면으로는 말을 끌고 있는 마부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른쪽 벽면의 위로는 제기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시령이 있고 액자의 아래로도 기러기 켓상을 대신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나무판자가 설치되어 있다.

이 당집의 유래에 대하여 이인렬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 어느 해 엄동설한에 남매거지가 동네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권곡동이 매우 가난한 마을이었다. 두 거지가 구걸을 해가면서 지내다가 어느 집에 묵자고 하였으나 채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남매는 지금의 당집이 있는 곳이 바람이 불지 않고 고요한 까닭에 그곳에서 자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 동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동네에 흉년이 들고,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은일, 요절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

그러던 어느날 동민 가운데 한 노인이 꿈에 백발노인이 현몽하여, 이러 이러한 곳에 가면

어린 남매가 죽어 있는데, 그 곳에 당집을 지어 그 혼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만이 네가 살 수 있다고 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매 거지가 얼어 죽은 자리에 당집을 짓고 제사를 지낸 다음 부터는 마을에 우환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석 씨의 말에 따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옛날 어느해 겨울에 남매거지가 동네에 들어 왔다.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남매 가운데 하나는 지금의 당집이 있는 곳에서 얼어 죽고, 나머지 하나는 이웃 신창면 수장리에서 얼어 죽었다. 그 후 권곡동에서는 흉년이 들고 단명하는 자, 호랑이 한테 물려 가는 자가 많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해 부자집에 도사가 들어와 시주를 한 다음 몇 년전에 거지가 얼어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신을 모셔야 한다고 해서 그곳에 당집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마찬가지로 신창면 수장리에도 똑같은 흉년과 당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도사의 이야기에 따라 거지가 죽은 곳에 당집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그 후 마을에 평안이 찾아왔다.

● 동제의 소멸과 부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계속하여□당고사□라 하는 동제를 지내왔다. 그러던 중에 1970년대 초 새마을 사업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동제를 중단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이어 고사를 중단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당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벽을 때려 부수고, 당신도도 찢어버렸다. 그런 다음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에 계속하여 우환이 생겨났다. 아무런 일없이 젊은 사람이 죽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동민들은 동제의 중단에 기인된 것이 아닐까 하고 여겼다. 그러다가 1981년(1980년일 가능성도 있음)에 40대의 동민들이 스스로 동제의 부활을 시도했다. 허물어진 당집도 보수하고 현재의 당신도 4점을 당시 10만원을 들여 주문 제작해서 안치했다. 그리고 3명의 무당을 불러 동제를 지냈다. 이렇게 동제를 부활한 다음부터는 마을의 우환이 사라졌다고 한다.

● 동제시기

동제는 해마다 일정한 날에 올리는 것은 아니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늦게는 대보름부터 2월 초까지의 기간 중에 고사일을 정한다. 이러한 고사일의 택일은 그 전해에 동제를 지낸 다음 동네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요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고사 날짜를 정한다. 대개 동제일은 익일로 하는데, 산신령을 위한다는 뜻이라 한다. 제사는 오전 10시경에 지낸다.

● 제관선정

옛날에는 당주라고 부르는 제관이 있었다 한다. 이 당주는 확대된 동제인□큰 곳□에서 무당이 축원하여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당주를 그만두고자 하면 큰곳할 때 동네 사람들에게 대동대를 잡고 선언한다. 이때 무당이 축원을 하면서 새로운 당주를 찾도록 해 준다. 전 당주는 책임자에게 대동대를 잡힌다. 그래서□내림이 내리면□그가 새 당주로 선정된다. 나이에는 상관없이 40세 이상의 성실한 사람이 되는게 보통이다. 당주가 결정되면 그의 부인도 제관이 된다. 결정된 당주는 3~6년 정도 연임한다.

그러나 동제가 부활된 이후 부터는 그해 당년에 제관을 선정한다. 동제일을 택일하는 사람이 제관까지 선정한다. 생기복덕을 따져서 운에 맞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이렇게 뽑은 사람을 당주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제관이 된다.

● 경비추렴

옛날에는 마을에 풍물(농악)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초에 동계지내기 전에 마을을 돌면서 풍물을 쳐서 쌀, 돈, 종이 등을 모았다. 큰굿을 할 때는 모종동, 백암동, 석정동 등 이웃 동네까지 다니면서 걸립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풍물을 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 모으지도 않는다. 동네사람들이 성의껏 5,000원 내지 10,000원씩 돈을 내어 이것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 금기와 제수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동제 전 날 목욕제계해야 하며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술과 담배를 금하여 청렴 결백해야 하고 남과 싸움을 해서 피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당주집과 제당이 있는 팽나무에는 금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시킨다. 금줄은 원새끼로 꼬아서 한지쪽을 꽂아 만든다. 그러나 요즘에는 팽나무에만 금줄을 친다.

상중에 있는 자는 동제시 부정풀이를 하기 전까지는 동제를 구경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67년 전 큰 굿을 할 때 소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부정풀이를 하기 전에 당집 앞에 왔다. 그러다가 아연 실색하더니 뒤로 쓰러졌다. 무당이 달려와서 축원하니까 비로소 깨어 났다. 이만큼 이 동제당이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제물을 사러 가서는 절대로 애누리를 하지 않는다. 제물의 장만도 당주가 한다. 제물로는 밤, 대추, 꽃감, 사과, 배, 떡(흰떡), 술 등이며 젓상에는 비록 대낮이라 해도 촛불을 켜다.

● 제사절차

제사는 동민들끼리 올리는 때와 무당을 불러서 지내는 때에 그 규모가 달랐다. 옛날에는 3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당고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규모가 매우 컸다. 이를□큰 굿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동민들끼리 무당을 부르지 않는 평년의 당고사는 간략하게 지낸다. 당고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권곡동 뿐 아니라, 모종, 백암, 석정동의 동민들도 참여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권곡동에서만 참여한다.

● 평년의 당고사

제관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동제당으로 간다. 뒤이어서 풍물치는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동제당을 향한다. 이 뒤를 여러 동민들이 따른다. 풍물꾼들은 동제당 앞에서 동서남북을 향해 각각 1번씩 서서 절을 한다.

제물은 팽나무 앞, 산신령 앞, 총각 앞, 처녀 앞, 마부 앞에 각기 차리고 제물을 차린 순서로 절을 한다. 팽나무에 지내는 제사는 특별히□산제□라고 부르고 있다. 절을 할 때는 당주와 그 부인이 함께 한다. 축문은 없다. 절이 끝나면 마을의 이장과 동계장(동네 풍기를 단속하는 사람)이 절을 올린다. 그 다음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당주, 이장, 동계장뿐 아니라 전 동네의 가장의 소지를 모두 올린다. 소지를 올리면서 마을의 평안과 풍년, 무병등을 기원한다. 이어서 구경하고 있던 전 동민들 가운데서 절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절을 한다. 돈을 놓고 절을 하기도 한다. 고사가 끝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음식을 약간 씹 나누어 뿌리는데, 이를 고수레(고시레)라고 한다.

부활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과 절차로 고사 지내지만, 동민들의 참여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 큰 곳

3년마다 동제의 규모를 크게 하여 경기도 등지의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고 당고사를 지내는 데 이를□큰굿하다□,□큰굿 잡숫는다□,□별신한다□등으로 불렀다.

무당과 풍물치는 사람이 함께 풍물을 치면서 동제당으로 올라간다. 이때 당주도 제물을 가지고 간다. 동제당에 도착하면 풍물치는 사람들은 역시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절을 한다.

그리고 먼저 무당이 부정풀이를 한 다음 젓상을 차린다. 이어서 당주에 한 다음 제사를 차린다. 이어서 당주에 대한 축원을 한다. 다음에 산제를 올리고, 산신령, 총각, 처녀, 마부에게 절을 한다. 절은 당주와 그 부인이 먼저 하고, 다음에 이장과 동계장이 한다. 동네사람 가운데 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때에 절을 한다. 이어 무당이 당주와 이장, 동계장의 소지를 올린다.

동민들도 각자 무당에게 요청하여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축원하는 내용은 농사에 풍년마을의 평안, 무병장수 등이다. 고사가 끝나면 역시 고수례를 한다. 큰굿을 할 때면 으레히 광대패를 초청했다. 그래서 당집 뒤에 있는 소나무에 줄을 매고 줄타기를 시키며, 삼현육각을 갖추어 크게 놀도록 했다. 물론 동민들도 모두가 참가하여 흥겹게 놀았다. 그러나 이러한 큰굿은 옛날에 소멸되었다.

1980년(혹은 1981년)에도 동제를 부활시켜 무당을 부르고 당고사를 올렸으며, 1987년에도 무당이 참여한 가운데 당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옛날의 큰 굿만큼 큰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도 이때의 당고사를 큰 굿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 제사후의 음복과 동회

당고사를 지낸 다음에는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반드시 동회를 열었다.□대동계□라고 불렀던 동회의에서 동민들이 당고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동네의 주요 과제를 토의했다. 내년도의 당고사 날짜의 결정과 제관의 선출, 대동계장 선출, 이장 선출, 동네 총무 선출, 농로보수일자 결정, 농부의 품삯 결정 등이 이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요즈음에도 이러한 회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